

쇼츠 23편 실측 기록

조회수 2만 3천 회를 만든 혹 공식, 그리고 이메일이 0명이었던 이유

이 문서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스물두 살 현역 군인이 얼굴도 목소리도 내지 않고 쇼츠 23편을 올렸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약 2만 3천 회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남긴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숫자를 전부 열어두고,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잘된 부분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안 된 부분은 저처럼 시간을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1. 전체 기록 — 23편 조회수

편집도 촬영도 없습니다. 대본을 쓰면 파이썬이 카드형 영상으로 렌더합니다.

아래는 게시 순서가 아니라 조회수 순서입니다.

조회수	제목
1,974	이병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미 92% 저축 중입니다)
1,740	수익률은 반토막인데 주식 수는 늘었습니다
1,675	파이어족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1,470	600만원이 2,900만원이 됐습니다
1,361	35살에 8억 모은다니까 웃더라고요 (계산해보니 8천만원이었습니다)
1,344	군대 가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했습니다
1,305	3주 만에 114만원이 사라졌습니다
1,261	영상 19편 만들어서 19,000원 벌었습니다
1,242	군인은 폰을 못 씁니다. 그래서 더 잘 모읍니다
1,187	잘나가던 반도체가 떨어져도 안 파는 이유
1,182	89만원 벌고 팔았습니다 (그게 제일 비싼 실수였어요)
1,171	차트 보고 산 계좌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쪽이 이겼어요)
1,064	매달 175만원 저축, 부대에서 말했더니 생긴 일
794	114만원 잃은 종목, 다시 사지 않았습니다 (본전은 다른 데서 찾았어요)

조회수	제목
164	실계좌 결산 1화, 이번 달 129만원 증가
130	이병 때 투자 안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112	종목을 안 고릅니다, 역할별로 나눠 담아요

굵게 표시한 부분이 괄호 반전입니다. 상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3장에서 설명합니다.

2. 혹 3초 — 여기서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쇼츠는 첫 3초에 스와이프 여부가 갈립니다.

23편을 돌려보며 확인한 규칙은 하나였습니다.

첫 6~8단어 안에 숫자 또는 도발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검증된 3대 공식

공식	구조	실제 사용 예
① 숫자 대비	작은 숫자 → 큰 변화	"600만원이 2,900만원이 됐습니다"
② 역발상	통념을 뒤집기	"군인은 폰을 못 씁니다. 그래서 더 잘 모읍니다"
③ 실수 경고	안 하면 손해	"89만원 벌고 팔았습니다. 그게 제일 비싼 실수였어요"

매 영상 이 셋을 돌아가며 씁니다. 같은 공식을 연속으로 쓰면 채널이 단조로워집니다.

2초에 죽는 오프닝 — 실측으로 확인한 것

- "안녕하세요" / "여러분" / "오늘은 ~에 대해"
- "솔직히 말할게요" / "그거 아세요?"
- 숫자 없는 추상 문장 — "열심히 했더니 달라졌어요"

느린 인사와 뚝들이기는 예외 없이 이탈을 만들었습니다.

쇼츠에는 도입부가 없습니다. 첫 문장이 곧 결론의 절반이어야 합니다.

열린 고리를 남길 것

혹에서 던진 궁금증은 중반 이후에 풀립니다.

혹에서 다 말해버리면 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114만원을 잃었습니다"까지만 말하고, 어떻게 잃었는지는 15초에 풀립니다.

3. 제목 — 괄호가 뒤집는다

1장 표를 다시 보시면 상위권에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평범한 문장] + (그것을 뒤집는 괄호)

- 이병은 투자하지 마세요 (이미 92% 저축 중입니다)
- 35살에 8억 모은다니까 웃더라고요 (계산해보니 8천만원이었습니다)
- 차트 보고 산 계좌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쪽이 이겼어요)

앞 문장은 예상 가능한 말입니다. 괄호가 그 예상을 깨뜨립니다.

궁금증은 예상과 결과의 간격에서 생깁니다.

반대로 괄호 없이 금지형만 쓴 제목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종목 고르지 마세요”는 112회에 그쳤습니다. 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원리 한 줄 — 저장과 공유를 만드는 장치

영상 끝에 캡처하고 싶은 한 문장을 심습니다.

만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일상 단어 A]는 [의외의 조건]일 때 [결과]다

- “돈은 눈에 보이면 사라지고, 안 보이면 쌓입니다.”
- “잃은 돈을 되찾는 곳은, 잃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 “투자는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안 건드리는 게임입니다.”

정보는 소비되고 끝나지만, 문장은 저장됩니다.

저장과 공유는 알고리즘이 가장 무겁게 보는 신호입니다.

5. 그런데 조회수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동한 부분입니다. 이제 작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3편, 누적 2만 3천 회.

같은 기간에 이메일을 남긴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조회수의 97%가 알고리즘이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넘기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넘기다 본 사람은 프로필을 누르지 않습니다. 링크는 더더욱 누르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도달의 지표일 뿐, 관심의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블로그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 1명이 전자책을 샀습니다.

소셜 도달 6만 명 → 이메일 0명 → 매출 0원
검색 클릭 12명 → 구매 1명 → 매출 19,000원

검색 12명이 소셜 6만 명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3 달이 걸렸습니다.

쇼츠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츠의 역할을 잘못 정했다는 뜻입니다.

쇼츠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믿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파는 건 검색이 하고, 쇼츠는 그 사람이 검색으로 왔을 때 “아 이 사람” 하게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6. 그래서 무엇을 바꿨나

세 가지를 바꿨고, 지금 그 결과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첫째, 영상마다 답하기 쉬운 질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병 때 폰으로 뭐 하셨어요?” 같은 것입니다.

정보만 주고 끝나면 시청자는 그냥 떠납니다.

둘째, 커버를 텍스트에서 실제 화면 캡처로 바꿨습니다.

텍스트 커버는 468~972회, 화면 캡처 커버는 2,232~42,000회였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커버가 도달을 먼저 가릅니다.

셋째, 검색용 글을 매일 자동으로 발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쇼츠는 오늘 반응하고 내일 사라지지만, 글은 6개월 뒤에도 사람을 데려옵니다.

7. 이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지금까지 읽으신 건 **대본 부분의 일부**입니다.

혹 공식, 제목 구조, 원리 한 줄까지가 여기 담긴 전부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들려면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 전개 4~6문장을 카드로 쪼개는 규칙
- 참여 엔딩 3박자 (질문 → 공유 유도 → 팔로우)
- 얼굴·목소리 없이 만드는 제작 순서 (무료 도구만)
- 예시 대본 12편 — 그대로 숫자만 바꿔 쓰는 방식

- 하루 1시간 운영 루틴

얼굴 없는 쇼츠 릴스 반자동화 시스템에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STANDARD	29,000원	대본 공식 + 예시 대본 12편 + 노코드 제작 가이드 + 운영 매뉴얼
DELUXE	59,000원	위 전체 + 자동화 청사진 (댓글 자동 DM, 블로그 자동발행 설계도)
PREMIUM	150,000원	위 전체 + 파이썬 일괄 렌더 키트 (대본 N개 → 영상 N개)

→ kmong.com/gig/800518

사기 전에 이걸 알고 가세요

저는 이걸로 아직 큰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23편을 만들어서 번 돈은 19,000원이고, 그것도 쇼츠가 아니라 검색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파는 건 수익 보장이 아니라 제작 시스템입니다.

얼굴을 안 내고, 목소리를 안 쓰고, 하루 한 시간으로 영상을 계속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리는 게 문제라면, 이걸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면, 제가 쓰는 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훅 공식만 써도 다음 영상은 달라집니다.

fire20note.com